

조선어 철자법의 기초 (4)

5. 결합 모음(結合母音) “이”와 “으”

어간의 끝 음절의 받치口의 성질에 따라, 일정한 토와 결합될 때, 체언의 경우에는 결합모음 [이], 용언의 경우에는 결합모음 [으]가 나타난다.

1). 어간의 끝 음절에 받치口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결합모음 “이”나 “으”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예:

소 (牛) 고 소니 소다 소랴 소면 소비니다
(소시) 소여야 소지

보 (見) 고 보니 보다 보랴 보면 보비니다
보시 보야야 보지

배 (梨) 고 배니 배다 배랴 배면 배비니다
(배시) 배야야 배지

개 (犬) 고 개니 개다 개랴 개면 개비니다
(개시) 개야야 개지

지 (負) 고 지니 지다 지랴 지면 지비니다
지시 지야야 지지

2). 어간의 끝 음절에 받치口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현상을 볼 수 있다.

첫째로 어간의 끝 음절에 받치口이 있는 체언이 토와 결합 때에는 반드시 결합모음 “이”를 필요로 한다.

제재로 어간의 끝 음절에 “ㄱ, ㄴ, ㄷ, ㄹ” 이외의 받치口이 있는 용언이 “ㄹ, ㅁ, ㅂ”를 두음으로 하는 토 및 토 “니, 시”와 결합될 때에는 결합모음 “으”를 필요로 한다. 즉 이 경우 “ㄹ, ㅁ, ㅂ” 이외의 음을 두음으로 하는 토 및 토 “는, 네, 느냐? 니?, 나?...” “소, 세, 사와, 사오니, 삼오 ...”와 결합될 때에는 결합모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받 침	어 간 의 례	토의 두음별 분류와 그 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모음	ㅈ		
		고	니	네	다	랴	면 다	시	소	아야 야	지	
ㅂ	굽—(屈指)	—	으—	—	—	으—	으—	으—	으—	—	—	—
ㅅ	없—(無)	—	으—	—	—	으—	으—	으—	으—	—	—	—
ㄷ	받—(受)	—	으—	—	—	으—	으—	으—	으—	—	—	—
ㅅ	웃—(笑)	—	으—	—	—	으—	으—	으—	으—	—	—	—
△	걸—(步)	—	우—	—	—	으—	으—	으—	으—	—	—	—
ㄱ	막—(防)	—	으—	—	—	으—	으—	으—	으—	—	—	—
ㅁ	심—(植)	—	으—	—	—	으—	으—	으—	으—	—	—	—
ㅂ	많—(多)	—	으—	—	—	으—	으—	으—	으—	—	—	—

6. 어간과 토의 줄임 (縮約)

어간의 활용에 있어, 개별적인 경우 모음 또는 자음이 탈락하여 어간과 토가 줄는 일이 있다. 이때 줄는대로 포기하기로 하나 어간의 형태부를 되도록 보존하도록 받치口을 바로 잡는다.

례 :

1). 어간의 줄어짐

<u>본말</u>	<u>줄어남</u>
아기야	악아
기리기야	기러아
애꾸눈이야	애꾸눈아
어제저녁	옛저녁
어제그저께	옛그저께
까마귀까지	까막까지
가지고	갖고
미치고	밋고
디디고	덜고
온가지	온갖
일찌기	일찍

2). 어간과 토의 줄어짐

<u>본말</u>	<u>줄어남</u>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무엇이	무에
무엇을	무얼
그것이	그게
그것으로	그걸로

7. 두가지의 “이” 음

종래 “이” [1] 음에는 단 한가지 만 있는 것으로 알아 왔으나, 자세히 관찰하면 그곳에 “은 모음 1”와 “반모음 1” 가 있는

것을 알리 수 있어, “반모음 l” 를 특별히 “l” 자로 표시한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제 “온 모음 l”와 “반모음 l”를 비교하여 보면;

가지 (먹는 가지; 명사) 와

가지- (책을 가지다; 동사)

에 있어, 자음 로 “타”가 오면

이것은 가지다. (세 음절)

그는 책을 가지다. (세 음절)

로 되어 “가지다”, “가지다”는 다 같이 세 음절이다. 모음 로 “어서”, “였다”가 오면

이것은 가지어서 (네 음절)

이것은 가지였다 ()

에 대하여

그는 책을 가지어서 [가져서] (세 음절)

그는 책을 가지였다 [가졌다] ()

로 되어 음절 수가 서로 다르게 된다. 이것으로 써 “온모음 l”와 “반모음 l” 가 서로 다른 음임을 알리 수 있다.

따라서 명사의 [가지]와, 동사의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며 또한 명사의 “가지”는 언제나 “가지”로, 동사의 “가지-”는 언제나 “가지-”로 표기함으로 써 그 형태를 고정시키리 수 있다.

“반모음 l”는 원칙적으로 용언 어간의 말음에만 나타나며, 종래 “온모음 l”로 표기되던 용언 어간 말음은 그 절대 다수가 “반모음 l”로 적어야 할 것이다.

1). 어간 말음을 반모음 l로 적어야 할 례:

치다 (打) 치고 치어 치였다

지다 (負) 지고 지어 지였다

오시다 (來의 尊敬法) 오시고 오시어 오시였다

먹이다 먹이고 먹이어 먹이였다

2). 어간 말음을 온모음 l로 적어야 할 례:

시다 (酸味가 있다)	시고	시여	시였다
미다 (窓戶紙를 찢다)	미고	미여	미였다
기다 (개미가 기여가다)	기고	기여	기였다
빼다 (물이 빼다)	빼고	빼어	빼였다

3). 반모음 l로 어간이 끝난 용언으로 부더결성된 명사의 예:

받치다	→	받치ㅁ
알리다	→	알리ㅁ
울리다	→	울리ㅁ
드리다	→	드리ㅁ

8. 소위 “변격 용언”의 처리

이상 여러 조항에서의 서술로써 알리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소위 “변격 용언”은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이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1). 종래의 “ㄹ 변격 용언”은 “ㄹ”자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예:

울다 (啼)	울고	울니	울어	울바니다	울시니	울오
놀다 (遊)	놀고	놀니	놀아	놀바니다	놀시니	놀오
불다 (吹)	불고	불니	불어	불바니다	불시니	불오

[부기] 통속적인 철자법에 의하여 “ㄹ”자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묵음되는 곳에서는 “ㄹ”자를 쓰지 않고

놀다	놀고	노니	놀니다	노시니	놀오
----	----	----	-----	-----	----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렇나 이렇게 적으면 어간의 형태부가 “놀-”, “노-”로 동요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기본 원칙과 어긋남은 물론이다.

(2). 종래의 “ㄴ 변격 용언”은 “ㄴ”자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례: **징다 (造)** 징고 징어 징니 징녀?
잉다 (進) 잉고 잉어 잉니 잉녀?
양다 (癢) 양고 양아 양니 양녀?
붕다 (注) 붕고 붕어 붕니 붕녀?

[부기] 통속적인 철자법에 의하여 “○” 자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징다 짓고 지어 지으니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렇나 이렇게 적으면 어간의 형태부가 “짓-”, “지-”로 동용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기본원칙과 어긋남은 물론이다.

(3). 종래의 “ㅎ 변격 용언”은 어떠한 토 위에서나 “ㅎ” 받치口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례:

하얗다 (白) 하얗니 하얗ㄴ 하얗면
 커다랗다 (大) 커다랗니 커다랗ㄴ 커다랗면

(4). 종래의 “ㄷ 변격 용언”은 “△”자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례:

걷다 (步) 걷고 걷어 걸으니 걸녀?
 능다 (焦) 능고 능어 능으니 능녀?
 듣다 (聽) 듣고 듣어 들으니 들녀?
 묻다 (問) 묻고 묻어 물으니 물녀?

[부기] 통속적인 철자법에 의하여 “△”자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걸다 걸고 걸어 걸으니

또는

것다 짓고 지어 지으니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렇나 이렇게 적으면 어간의 형태부가 “걸- (것-)”, “진”

로 동요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기본원칙과 어긋남은 물론이다.

(5). 종래의 “리 변격 용언”은 “ㄴ”자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례:

가깝다 (近) 가깝아 가깝니 가깝네 가깝네?

무겁다 (重) 무겁어 무겁니 무겁네 무겁네?

높다 (陔) 높어 높니 높네 높네?

맹다 (幸) 맹어 맹니 맹네 맹네?

[부기] 통속적인 철자법에 의하여 “ㄴ”자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가깝다 가까와 가까우니 가깝네

무겁다 무거워 무거우니 무겁네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적으면 어간의 형태부가 “가깝—” “가까오— (가까우—)”로 동요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기본원칙과 어긋남은 물론이다.

(6). 종래의 “여 변격 용언”은 “4. 어간과 토 4).”에서 본 바와 같이 “여” 토의 사용 규칙을 바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례:

하다 (爲) 하이 하여도 하여야 하였으니 하였다

(7). 종래의 “리 변격 용언”은 “ㄴ”음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례:

이물다 (至) 이물어 이물었다

푸물다 (靑) 푸물어 푸물었다

누물다 (黃) 누물어 누물었다

이때 “ㄴ”을 “ㄴ, ㅂ, ㅅ, ㅇ” 이외의 자음 토 위에서도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르다], [이르고], ...) “ㄴ”을 발음하는 것

을 원칙으로 삼고 발음하지 않는 것도 허용한다.

[부기] 통속적인 철자법에 의하여 “ㄹ”자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이르다 이르러 이르렀다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렇나 이렇게 적으면 어간의 형태부가 “이르-”, “이르르-”로 동요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기본원칙과 어긋남은 물론이다.

(8) 종래의 “르 변격 용언”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음의 발음 규칙을 바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규칙적으로 된다. 이곳에 종래의 “ㄹ리” 대신에 (갈타, 갈랐다, ...) “ㄹ” 자모를 사용한다,

예:

가르다 (分)	가타	가랸다	가리다
오르다 (登)	오타	오랸다	오리다
흐르다 (流)	흐타	흐랸다	히리다
기르다 (養)	기타	기랸다	기리다

이때 [르]를 [ㄹ]로 발음하기도 하나 ([가르다], [오르다], [흐르다], [기르다]) [르]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ㄹ]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부기] 통속적인 철자법에 의하여 “ㄹ”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가르다, 갈타, 갈랐다, 갈리다
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렇나, 이렇게 적으면 “ㄹ”로 써 설측음 (卷側音) “ㄹ”을 대신하게 되나 권설음 (卷舌音) “ㄹ”을 아무리 거듭하여도 설측음으로 될 까닭이 없으므로, 음리상으로 보아 모순이 있다. 또한 “-”음의 발음 규칙을 바로잡지 않으면

가르다 가타 가랸다 가리다

와 같이 어간의 형태부가 “가르”, “가랸”로 동요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9) 종래의 “ㄷ 변격 용언”은

엮다 (覆) 옆 (側) 잎 (葉) 쥘 (蹂) 쥘다 (杖)
형질 (布片)

ㄱ 공다 (妍) 굵다 (燒) 지다 (補) 능다 (臥) 던다
(暑) 돕다 (助) 밉다 (憎) 맹다 (幸) 쉬다 (易)
춥다 (寒)

ㄴ 값 (價) 가없다 (憐) 부결없다 (漫) 시름없다 (愁
貌) 없다 (無)

ㄷ 권다 (捲) 곧 (即) 곧다 (直) 굳다 (固) 난(穀)
달다 (閉) 돌다 (昇) 만 (昆) 묻다 (埋染) 믿다
(信) 받다 (受) 얻다 (得)

ㄹ 같다 (同) 결 (表) 끝 (末) 날 (個) 맡다 (任
嗅) 밑 (底) 밭 (田) 밎다 (迫) 별 (陽) 붙다
(付) 솥 (鼎) 얕다 (淺) 팔 (豆)

ㄺ 잣 (笠) 낫 (鎌) 벗다 (脫) 옷 (衣) 찢다 (拭)

ㄻ 깨달다 (覺) 걸타 (步) 견다 (編) 켜다 (汲) 능다
(焦) 달다 (走) 다달다 (臨) 듣다 (聽) 묻다
(問) 붓다 (殖) 싣다 (載) 일컫다 (稱)

ㄼ 겹다 (未來로) 았다 (過去로) 었다 (過去로) 있다
(有)

ㄽ 갖다 (備) 꽃다 (插) 꾸짖다 (叱) 굶다 (凶)

낮 (晝) 낮다 (低) 늦다 (晚) 맞다 (迎)
맞다 (適. 被打) 맺다 (結) 부르짖다 (叫) 빚 (債)
잊다 (忘) 젖 (乳) 젖다 (濕) 짖다 (吠) 찢다 (裂)
찾다 (尋)

ㄾ 갖 (皮膚) 꽃 (花) 낯 (顔) 닳 (鎚) 밎 (捕獸機)
돛 (帆) 밎 (幾) 빛 (色, 光) 숯 (炭) 옷 (漆)
숯 (柄) 좃다 (從) 좃다 (逐)

ㄿ 국 (羹) 녹 (鑄) 막다 (防) 떡 (餅) 썩다 (腐)

ㅋ 냉 (頓) 부엌 (廚)

- ㄱ 꺾다 (削) 꺾다 (折) 겪다 (經) 낚다 (釣)
 닦다 (拭) 묵다 (束) 밖 (外) 볶다 (炒) 섞다 (混)
 속다 (抄) 엮다 (編)
- ㄴ 님 (魂) 몫 (配分) 샅 (貨)
- ㄷ 검엿다 (黑) 기다탕다 (長) 깊다탕다 (深) 낱다 (齏)
 넣다 (入) 높다탕다 (高) 놓다 (放) 놓엿다
 (黃) 탕다 (接) 통굴엿다 (團) 범엿다 (赤)
 자그탕다 (小) 좋다 (好) 커다탕다 (大) 펼엿다
 (靑) 히엿다 (白) 탕다 (辦) 빵다 (碎) 쌓다 (積)
 썩늘엿다 (冷) 쥘다 (搗)
- ㄹ 증다 (劃) 낱다 (瘡 優) 붓다 (注) 영보다 (窺視)
 잉다 (連) 장다 (紡) 쥘다 (攪) 쥘다 (造)
 줌다 (拾)
- ㄷ 길 (道) 날 (日) 물 (水)
- ㄹ 갈다 (耕) 걸다 (掛 肥沃) 길다 (長) 날다 (飛)
 놀다 (遊, 稀) 달다 (甘, 掛, 量) 돌다 (回) 멀다
 (遠) 물다 (嚙) 밀다 (推) 벌다 (儲) 불다 (吹)
 썩다 (生疎) 잘다 (細) 질다 (泥)
- ㄹ 넓다 (廣) 밟다 (踏) 얇다 (薄) 여덟 (八) 엷다
 (薄) 짧다 (短)
- ㄹ 읊다 (詠)
- ㄹ 굵다 (太) 굵다 (搔) 기슭 (麓) 늙다 (老)
 닭 (鷄) 맑다 (淸) 뉘다 (淡) 밝다 (明) 붉다 (赤)
 엷다 (痘痕 構) 읽다 (讀) 흙 (土)
- ㄹ 핥다 (舐) 훑다 (挾拔)
- ㄹ 곱 (向方) 들 (暮)
- ㄹ 끓다 (未滿) 끓다 (脆) 끓다 (沸) 탕다 (耗)
 뚫다 (穿) 솥다 (精米) 싫다 (厭) 앓다 (病)
 옴다 (可) 잃다 (失)

